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9호 발표 前 현대자동차 사장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월 22일(월)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영운 前 현대자동차 사장(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공영운 전 사장은 경상남도 산청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향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 대학생활을 해나가던 속 깊은 학생이었다.

대학교 졸업 후 문화일보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사회부 경찰청 담당 기자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경제부, 법조 담당 기사를 거쳐 정치부 기자로 10년간 활동하며 여당 팀장, 야당 팀장을 두루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도입,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국내·외 굵직한 현안을 취재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혀나갔다.

2005년에는 회사 내 해외연수 시험에 합격해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현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를 눈 여겨보던 현대자동차로부터 입사제안을 받았고 고심 끝에 전략개발팀 이사대우로 입사하며 인생 제2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첫 해외 공장인 앨라배마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불과 몇 년 사이 9개 국가에 15개 공장을 신설할 정도로 급속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격변의 시기였다. 공영운 전 사장은 해외정책팀 부서를 신설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가별 수도에 거점을 만들어 법률, 통상, 환경 등 자동차 산업에 영향이 큰 분야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글로벌 연결망 구축에 앞장섰다. 이 부서가 최근에는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기후규제 등과

같은 주요의제를 다루는 기능조직으로 성장해 회사의 핵심조직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영운 전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운명을 좌우할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물꼬를 튼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후 공영운 전 사장은 그룹 안에서 전략기획 전문가로 역량을 인정받아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18년에는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발탁됐다. 2022년 말 퇴임까지 총 18여 년을 임원으로 재직하며 현대자동차가 내수 중심의 회사에서 세계 3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분야에서 기존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공영운 전 사장이 기업현장 일선에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분야의 식견을 넓혀왔고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역량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갈 책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공영운 전 사장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했고 심지어 0%대 저성장 시대가 우려되는 것이 직면한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 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경쟁의 판도를 바꿀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공영운 프로필

<붙임 2> 공영운 인재 소개

□ 일반사항

- 1964년 경남 산청군 출생(59세)
- 진주 동명고등학교 졸업(1983)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9)



□ 주요 경력

- 문화일보 기자(사회부/경제부/정치부) ('91~'05)
- 현대자동차 전략개발팀장(이사대우) ('05~'07)
- 현대자동차 해외정책팀장(이사/상무) ('08~'11)
- 현대자동차 홍보실장(전무/부사장) ('12~'17)
-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18)
- 대한상공회의소 한·사우디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0)
-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18~'22)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19~'22)

□ 상훈

- 2014년,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표창
- 2015년, 국토부장관표창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모범생의 파란만장 청년기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1964년 경남 산청에서 평생을 농부로 사신 부모님의 넷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오고, 중학교 3학년 때에 텔레비전이 생겼을 정도로 오지였다. 공영운 사장 역시 집 농사일을 도울 정도로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헌신과 각고의 노력으로 1983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에서도 성적우수자로 전액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수재였으나,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의 폭력과 부조리에 괴로워하다 결국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민주화운동이 한창 타오르기 시작한 1986년에는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어 2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1991년 새로 창간한 문화일보에 공채1기로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2002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한 것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현장 취재기자로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공영운 사장은 15년여 동안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세상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현대차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이끌다

2005년 워싱턴 D.C에 있는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공영운 사장은 입사하자마자 현대차의 세계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사대우로 입사하여 전략개발팀, 정책조정팀, 해외정책팀 등 주요 부서에서 현대차의 혁신성장을 주도했고, 그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현대자동차 사장이 됐다. 그 사이 현대차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했다. 2005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처음 이름을 올렸던 현대차는 현재 브랜드 순위 32위에 올랐고, 브랜드 가치는 204억달러(27.3조원)까지 상승했다.(2023년 발표 기준)

특히, 미국 IRA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 전기차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앞서나가는 선도적 기업으로 변모한 건 공영운 사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경제계의 평가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

현대차 재직 중에는 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등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도 겸임했다. 미국과 통상문제가 현안이었던 시기에는 백악관을 3차례 방문하고 미 상무장관, 상하원 의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고, 펜타곤을 방문해 국방부와 회의를 하는 등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공영운 사장은 근무기간 동안 총 55개국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을 이끌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경제발전, 글로벌 기업의 등장 등에 관해 자부심을 느낄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

작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올해는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두개의 악재가 중첩되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의 늪으로 들어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영운 사장은 이제 판의 흐름을 되짚어봐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다. 기술의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유니콘 기업, 혁신 대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역동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경쟁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국가기간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국가 R&D을 예산 삭감한 것이나 기술과 인재 육성을 위해 필수요소인 교육예산까지 삭감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한다. 정치권과 공공이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만의 좁은 주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시급하고 긴요한 주제들로 논점을 바꿔야한다는 게 공영운 사장의 지론이다. 공영운 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IT,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문재인 정부의 5대 신산업 등과 같이 위기 때 혁신성장이 지속가능성장의 불씨가 된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운 혁신 성장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에서 이런 논쟁의 불씨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